

종합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첫 지원유세에 나선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 무안군 해제면 5일시장에서 유세를 갖고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공동선대위원장인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치주공아파트 앞에서 거리유세를 갖고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위직망기자 jrwi@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 상가를 돌며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위직망기자 jrwi@kwangju.co.kr

시설

로스쿨 설치 인가 지방대학 우대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신청이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전국 41개 대학이 신청서를 냈으며, 광주·전남지역 대학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 등 2개 대학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로스쿨은 현직조사·서면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예비인가 대학을 결정할 뒤 내년 9월 최종 인가대학이 결정된다. 로스쿨 유치 여부는 대학의 위상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각 대학과 지자체는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로스쿨은 양질의 전문화된 법학교육을 통해 국민의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 법조인과 경쟁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다. 우리나라의 단위 인구당 변호사 수는 미국의 33분의 1, 독일의 1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에 비해 법률서비스 수준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법률서비스가 훨씬 형편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간 균형배치가 최우선적 인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로스쿨이 인구 수나 법률인 배출 등 기존의 실적에 의해 결정된다면 수도권 편중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될 경우 로스쿨이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로스쿨 인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정원 배정비율은 지방국립대 총장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했듯이 4대6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지방교육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법률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정부는 로스쿨의 지역균형 배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비방·폭로전에 고소·고발 난무하는 대선

대통령 선거전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폭로가 잇따르면서 극심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위험 수위를 넘었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진흙탕 싸움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올 대선은 흔히 '3무(無) 선거'라고 한다. 선거 열기는 찾아볼 수 없고 의혹만 무성한 채 정책 및 공약 대결은 실종됐다. 후보간 TV토론은 일부 후보의 기피 현상에서 법원의 제동까지 걸려 불투명해졌다. 네거티브 전략이 판을 치면서 무정책·무토론·무판심의 선거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선은 사상 최악의 '혼돈 선거'가 될 전망이다. 후보가 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결구도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정치권은 'BBK 추가조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연일 '너 죽고 나 살기'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 후보단일화와 지지후보 교체 등 이합집산은 선거 막판까지 주요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과 지지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적절한 후보가 없거나 얽히고 설킨 선거구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책과 자질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한방 때리기'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정치권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만큼 매우 중요하다. 정치 혐오나 무관심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 최악의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선거권이 어지러울수록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도덕성과 철학, 비전, 국정 수행능력 등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호남표 잡아야 대선 필승” 주말 총력전

17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각 당의 대선 후보와 지도부 및 선대위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한 유세 대결을 벌였다. 각 대선 캠프는 역대 대선에서 특유의 응집력을 보이며 대선 판세를 좌우해온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양형일·김영진 광주선대위원장, 김태홍·강기정 의원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광주시 북구 오치종합복지관을 방문한 뒤 오치주공아파트와 동구 대인시장, 계림5거리 등을 돌며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과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은 신승식 전남선대위원장, 김효석 원내대표 등과 함께 1~2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해남과 장흥, 장성지역 순회 지원유세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불가본'을 역설하며 정 후보 지지율 높이기 위해 주력한다. 정동영 후보는 3일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나주시를 방문해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광주공원에서 유세를 가질 예정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무안을 시작으로 해남, 강진을 돌며 이명박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유세에 나섰다. 호남권을 첫 유세지로 선택한 박 전 대표는 이날 "정권이 제대로 하면 선거에서 한번 더 힘을 모아주고, 못하면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이번에 한나라

박근혜 무안서 첫 나 지원 유세 김근태 鄭 지지율 높이기 주력 박상천 서부벨트 구축에 심혈 문국현 서민층 과고들며 표홍기 권영길·이회창 내주초 광주·전남 방문

당에 기회를 달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표는 애초 정권교체의 원칙만을 강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 후보의 이름을 두번이나 입에 올리며 직접적 지지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강제집 대표도 이날 오후 여수서시장과 터미널에서 유세를 펼친 뒤 여수엑스포유치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이명박 후보는 2일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순천과 광양, 여수, 광주 등을 돌며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박상천 대표와 함께 1일 해남을 시

작으로 보성~장흥~화순~담양~장성지역을 돌며 재·보선 후보들과 함께 유세를 펼친 뒤 전북으로 이동, 서부벨트 구축에 주력한다. 이어 2일과 3일에는 광주에서 거리유세를 갖는다.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연설회로 공식 등록한 이 후보의 부인 김은숙씨도 1일 광양, 순천, 광주 등지 시장을 돌며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지난달 30일 광양을 기점으로 여수와 순천, 광주와 나주, 목포까지 이어지는 뿔뿔한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호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문 후보는 곧장 여수 시청 앞 유세에서 "여수가 우리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 여수와 목포에서 부산까지 잇는 남해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여수 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총장로 입구 등에서 유세를 벌였다. 이날 문 후보는 범여권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죽음의 키스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1일 여수와 광주를 찾아 권영길 후보 지지를 호소했으며, 권 후보는 3일 광주 양동시장과 송정리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유세를 전개한다. 한편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오는 4일 광주·전남을 방문해 산업현장과 민생현장을 둘러본 뒤 광주·전남지역 공약 발표와 함께 호남표심 잡기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욕쟁이 할머니' 이명박 광고 "진짜 인물 아니다"

신당,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키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TV 광고에 등장하는 '욕쟁이 할머니'는 낙원동 국립집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인물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고에 등장하는 국립집은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욕쟁이 할머니'는 강남에서 '욕쟁이 할머니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광고 속에서 욕쟁이 할머니는 이 후보에게 국립을 퍼주면서 "쓰잘데 기없이 싸움박질만하고 지달이여" 등 전라도 말투를 쓰지만 실제로는 충청도 출신이며 실제 나이도 이명박 후보와 같은 67세로 알려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광의에서 보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조만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탈당 도미노' 현실화되나

곽성문의 의원 이이 김병호 의원도 이회창 진영 합류 권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당내 일각에서 탈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진 박근혜 전 대표 계열로 분류되는 의원 3~4명 의 실명까지 나돌고 있다. 특히 탈당을 결행한 두 의원 모두 진 박근혜 전 대표 계열의 대구와 부산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에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檢, 삼성증권 전격 압수수색

비자금 의혹 관련 장부 등 확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7시간 만인 오후 3시에 끝났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30분부터 삼성증권 전산센터와 과천에 있는 삼성SDS e-데이터센터 등 2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오전·오후에 연이어 3곳에 대해 '동시타당'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수남 특수부 부장검사는 우선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형 박스 8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으며 사정실 등 10여 명의 임원실과 전라기획실, 직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업무문서와 전산입력 기록, 컴퓨터 다운로드 자료,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비자금 의혹 관련 문서, 업무분장·직제 기구 자료, 임직원들의 컴퓨터 저장매체 입력자료 등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근해가 도움이 되긴 되는건가?!

고흥 거금도에 '에너지 테마파크'

군-STX 40MW급 태양광 발전소 건립 투자협약 체결 고흥 거금도에 대규모 에너지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고흥군은 지난달 29일 STX에너지와 거금도 폐석산 부지에 세계 최대규모인 4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STX에너지는 66만㎡에 달하는 폐 석산 부지에 3천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40MW급 태양광 발전소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한다. STX에너지는 내년 초부터 공사에 착수해 우선 연내에 20MW급 발전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STX그룹은 발전소 운영에서 얻은 수익금의 30%(30억~80억원)을 20년 뒤 발전시설을 고흥군에 기부 채납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와 대기업 간 상생모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흥지역은 연평균 일조량이 2천564시간으로 전

檢 'BBK 의혹' 김재정씨 소환 조사

다스 소유관계-BBK 190억 투자경위 등 추궁 대주주였던 흥중국제 "BBK 30억 내가 투자" '김경준씨의 읍새빌벤처스 추가조사 및 BBK 회삿돈 횡령 혐의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30일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도곡동 땅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역시 이 후보가 실제 주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다스(옛 대구기공)의 지분 48.99%를 갖고 있다. ㈜다스는 또 이 후보의 만형 상은씨가 46.85%를 보유 중이어서 지분원씨가 이들 2명의 지분이 실제로 이 후보의 것임에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시켰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다스 지분의 실 소유 여부와 김경준씨가 설립한 투자자본사

남북, 내년 1~2월께 김영남 서울 방문 추진

남북은 내년 1~2월께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남측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30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남측 방문에 대해 남북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다음달 19일 예정된 대선 이후와 내년 2월25일 차기 정부 출범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1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